

인·터·뷰 기초전력연구원 중앙교육센터 김정훈 센터장

“전력IT 인력양성 아카데미 구축을 목표로”

‘전력IT 인력양성사업’의 추진 배경은.

새로운 산업 환경이 도래하면서 전력분야도 기존 교육 시스템과 인력양성체계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변화되는 전력산업 환경에서 전력IT 인력양성사업은 전력IT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력, 정보통신, 경영 등의 다학제적 교과과정 개발과 교육을 통해 교육체계의 변화를 주도하고, 전력IT 분야 산업체 인력수요에 부응하는 수요 지향적 인력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앙교육센터만의 차별화된 특징은 무엇인지.

전력IT 인력양성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초인력양성으로, 권역별 5개 분소(Cluster)를 선정하여 각 분소의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참여대학들과 함께 전력IT 전공트랙을 만들어 학생들이 전력뿐만 아니라 디지털 통신 등 IT과목을 수강토록 하고, 참여대학들과 교수뿐만 아니라 학생교류를 통해서도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고급인력양성으로, 중앙교육센터(Hub)에서 실시되는데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분야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미 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들이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전력IT 인재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각 분소에서 배출된 전력IT 학부생 및 대학원생과, 중앙교육센터의 교육을 통한 산업체 인력간의 산학협력이 다른 교육원과 차별화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교육이 시작됐는데 수강생들의 반응은 어떤지.

올해 7월에 실시된 첫 산업체 교육강좌인 ‘IT기반 분산전원 기술(기반과정)’의 경우 강의실 사정으로 신청자들을 전부 수용하지 못할 정도로 인기리에 강의를 마쳤습니다.

8월말 개설된 ‘전력시장기반 모의해석기술(기반과정)’은 전력거래소 및 LS산전, 효성중공업 등 산업체인력을

대상으로 현장 실무진을 강사로 초빙하고, KW-PSS 등의 실습교육을 통해 현장실무능력의 증대에 초점을 맞춘 강의를 실시해 수강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9월 3일부터 5일간 이어진 ‘전력통신망 기술(기반과정)’은 전력산업 종사자들에게 IT분야 기술을 교육시켰고, 9월 10일부터 시작되는 ‘전력IT 표준화 기술(전문가 과정)’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전력IT

표준화 규격인 IEC 61850 및 IEC 61970에 대한 실무중심의 고급교육을 목표로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수강인원을 30명 이내로 제한하여 강의전달 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비전이나 계획은.

‘전력IT 인력양성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중앙교육센터는 세계적인 전력IT 리더를 양성하고 전력IT 연구개발을 선도하는 전력IT 인력양성 아카데미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강점인 IT 기술을 접목한 우리나라의 전기 문화를 창출하여 세계 전력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려 합니다. 또한 산업체 교육 및 저변 인력양성을 통해 우리나라의 차세대 먹거리 산업이 될 전력IT 사업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 개의 교육주체인 위탁하는 업체, 교육자, 수강자 등에게 확실한 교육 동기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동기 부여를 위해 전력IT 트랙 인증자 및 산업체 교육프로그램 수강자에게는 인사고과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재 전력IT 인력양성사업의 정부지원은 4년에 불과하지만 최고 수준의 전력IT 커리큘럼과 강의를 통한 민간 지원의 확대, 센터의 독자적인 재정적 자립 등을 통해 전력IT 인력양성소를 건립, 나아가 전력IT 전문대학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홍보실 양 승 수)